

총체적 국난 극복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월례모임 가져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는 지난 2월 9일(목) 오전 11시 교단 총회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헌신을 되어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광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관현 목사의 대표기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창 1:1 말씀을 본분으로 한 설교를 통해 “전지전능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대

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안을 성경대로 판단해야하며,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을 혼잡케만 할 뿐이며 오히려 미혹케 하는 것이며, 오직 말씀대로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역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 반대’를 위해, ‘세계선교와 한국교회 영적개혁을 위해’, ‘한국교

회 성령충만을 위해’ 박동호 목사, 이강익 목사, 공병철 목사, 손대영 목사의 주제별 기도 인도가 있었으며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동연합회는 한국 사회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직시하고 이를 앞장서서 계도하는 한편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온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동성애 등 그릇된 신앙을 성경중심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2017 목사고시…성경대로의 복음 전할 사역자 세운다

교단 2017년도 목사고시, 총회 고시위원회-2월 20~21일

교단 총회 2017년도 목사고시가 2월 20일(월)과 21일(화) 양일간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 주관으로 총회신학원에서 치러져 한국교회가 그릇된 복음으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바른 복음, 오직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을 목회자로 세우게 된다.

시험 첫날인 20일(월) 오전 9시 30분 목사 임직 대상자들과 고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신학원 3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시위원 소개와 시험일정 안내 순서로 이어진다.

이번 2017년도 목사고시는 1교시 구약학(신약학)을 시작으로 교회행정학, 교회성장학, 교회사, 조직신학, 목회윤리학, 기독교교육학, 한민 시험이 차례로 치러지고 둘째 날에는 설교와 면접 등 목회실기 시험이 계속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서류심사를 거쳐 오리엔테이션 등 각종 목사고시 준비과정을 거친 수험생들은 최종 과정으로 목사고시를 치르게 된다.

올해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은 이번 목사고시를 통과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5월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각 지방회별로 거행된다.



2017년 이웃사랑대행진 펼쳐, 설맞이 사랑의 떡국나눠

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 S-Oil 후원으로, 영등포 쪽방촌에서

S-Oil(오스만 알 감디)과 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대표 박찬성)가 민속의 명절 설날을 맞아 사랑의 나래 행사를 펼쳤다.

사랑의실천국민운동본부가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번째 진행해 온 ‘설맞이 사랑의 떡국나누기운동’은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 소외된 곳을 찾아 사랑의 정을 나누는 행사로써 이번 ‘2017년 이웃사랑대행진-설맞이 사랑의 떡국나누기운동’에 후원사

인 S-Oil 대표와 임원 및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지난 1월 26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아 실시된 이 행사는 영세민 520세대들에게 떡국, 과일, 쇠고기, 라면 등을 전달했다. 이어 정오 영등포 일대 2천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정성껏 끓인 떡국과 함께 과일 등을 제공해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달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설 명절을 맞은 알 감디 CEO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서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더욱 필요할 때”라면서 “S-Oil과 임직원들이 이곳에서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떡국 나눔으로 주민들이 설날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Oil은 2007년부터 매년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 노숙자들을 위한 ‘사랑의 떡국나누기 봉사 활동과 더불어 난방에 필요한 유·연탄 등 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장애인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푸르초장은
바람을
스피네

‘본질상의 문제’

조용목 목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갈 4:8, 엡 2:3)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는 대략 몇 가지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죄 문제, 어떤 분은 죽음의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매일 매일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천재지변, 질병, 각종사고, 경제위기 등의 위협과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와 연결된 줄거리가 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사물의 본질보다 외형에 집착하고 실상이 아닌 허상에 매달리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는 사탄의 간사한 계략에 속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신성시하여 섬기거나 나무나 돌, 해와 달 같은 자연물을 신성시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소위 말하는 고등종교로 분류되는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분류되었든 실상은 모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 된 인생 스스로는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식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여 주셔야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만물을 유심히 살피므로 창조주가 계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여도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관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게 하셔서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성경을 통하여 창조주이

며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만게 됩니다.

둘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된 원리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지만 이 원리에 의하여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담이 대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인이 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온갖 방법으로 꾸민다 하여도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온갖 방법으로 포장하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진노는 심판을 초래합니다. 죽음은 죄인에게 심판의 집행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심판은 지옥 형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본질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면제받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형상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신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들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국가위기 극복 위해 복음으로 하나돼야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임원회 가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부용 목사)는 지난 2월 9일(목) 오후 1시 예하성 총회 회의실에서 고분조 용목 목사를 비롯 대표회장 정부용 목사, 이교의 목사,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를 갖고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한 마음을 되어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는 한국 사회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직시하고 이를 앞장서서 계도하는 한편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온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동성애, 용공주의 등 그릇된 신앙을 성경중심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한기총 내 이단조사, 임원회·통추위에 제공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 1차 회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바수위)는 지난 2월 6일(월) 한기총 내 이단관련 연구조사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한기총 소속 회원 교단 및 단체를 향한 이단 및 사이비성 조사를 계속 실시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교연 바수위는 연구조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기총과의 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 한기총 소속 회원 교단 및 단체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 및 사이비성이 있다고 규정한 집단 및 개인 그리고 이단 옹호 및

연루자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임원회와 통합추진위원회에 제공키로 했다.

한교연 바수위는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단과 관련된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에 충실하기 위해 이단 관련 연구조사 자료 수집에 집중기로 했으며, 제보자들과 면담 및 현황을 파악해 확실한 근거 자료를 수집기로 했다. 이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해 이달 말에 있을 임직원 워크숍에서 발표하게 된다.

한교연 바수위는 “국민일보가 계속해서

편파적인 보도로 한국교회연합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자료 및 대응책을 마련해 임원회에 보고기로 했다.

한교연 바수위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적당히 뒤쫓아 그릇된 길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다.

때문에 한기총 소속 회원교단 안에 숨어 있는 교단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겨왔다.

한교연, CBS기독교방송의 법적투쟁지지

신천지 집단 고소 건 기각판결 유감

(사)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2월 7일 오전 CBS기독교방송이 신천지에 대해 고소한 건에 대해 사법부가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반사회적인 이단사이비집단인 신천지의 도를 넘은 음해 행위에 맞서 그 교주인 이만희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 CBS기독교방송에 대해 사법부가 중거불충분이란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하여 본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신천지는 한국교회 공교단이 기독교를 가

장한 이단사이비단체로 규정한다 CBS기독교방송은 그동안 신천지집단이 한국교회에 끼치는 폐해의 실체를 바르고 신속하게 보도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사회를 보호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신천지 집단은 서울 목동 CBS방송국 본사를 비롯해 전국 CBS지역방송국 한국교회 연합기관, 관공서, 아파트 등지에서 CBS 폐쇄 서명 작업과 구호제창, 파켓시위, 현수막 설치, 호소문 배포 등 무차별적인 시위와 거짓 내용의 우편발송, 거짓보도 등을 일삼으며 CBS가 인권을 유린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거짓보도를 일삼는다는 허위주장을

며 CBS기독교방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본회는 유감을 표하며, 반사회적인 집단에 대한 사법부의 단일한 인식이 초래할 더 큰 문제들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한국교회연합은 한국교회 1천만 성도와 함께 한국사회의 질서를 아지럽히고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저지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일삼는 신천지집단에 끝까지 싸울 것이며, 아울러 CBS기독교방송의 법적 투쟁을 지지하고 힘을 합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바른신앙수호위원장 황인찬 목사〉

지역복음화대성회 및 목회자세미나 개최

세북협, 필리핀 빈촌 안티폴로 지역복음화 위해



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상임회장 박태남 목사/이하 세북협)는 필리핀 안티폴로(Antipolo City) 지역복음화대성회 및 목회자영성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북협 관계자들은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대성회를 계획하여 진행하고 목회자영성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등 성회와 목회자세미나 등 선교 일정을 진행했다.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은 필리핀 북부 루손 섬 칼라바르손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리

살 주의 주도이며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동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며 칼라바르손 지방의 한 도시이다.

도시와 시골이 함께 공존하는 안티폴로 지역에서 세북협은 먼저 가장 빈촌 중에 하나인 벤파이 지역을 방문해 지역복음화대성회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이단 활동이 강화된 벤파이 지역에서 세북협은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매진했다.

특히 피글링 교회는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가 섬기는 서울 예장교회에서 세운 교회로 교회와 함께 국제교회를 진행하여 실행하는 교사를 세워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미래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후 세북협은 나사렛 신학대학교를 방문했다. 나사렛 신학대학교는 필리핀 안티폴로에 자리 잡고 있는 신학교로서 복음주의 신학교이며 수많은 필리핀 목회자 후보생들이 복음주의 신학을 통해 건강한 목회자로 훈련받고 있다.

특히 세북협은 안티폴로 지역 목회자 200명을 나사렛 신학대학교로 초청하여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목회적 도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북협은 필리핀의 열악한 목회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그들을 위해 쌀을 준비하여 나누고 정성된 식사를 준비하여 대접했다. 또한,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MVP는 청소년·청년 선교리더십운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성과 전문성 그리고 좋은 품성을 갖춘(시 78:72) 선교운동”이라며 “12영역, 즉 교회와 가정, 정치, 정부, 경제, 교육, 언론, 과학, NGO, 문화, 예술, 스포츠/오락연예 등에서 각자의 영성과 전문성으로 공동체를 통해 실현해 감으로써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리자”고 강조했다.

참가했으며 토코쇼 형태로 진행되었다. G12MVP 사역 목적과 비전을 제시한 장한일 원장(생명나무교회 담임)은 “G12



2040비전리더십 아카데미

G12MVP 사역목적과 비전 제시

G12MVP 비전리더십운동을 전개하는 국제경리더십연구원(GCAL), 원장 장한일 목사는 지난 2월 3일부터 4일까지 용인 목양교회 수양관에서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G12MVP 2040 영성비전리더십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영성과 비전을 가진 2040 리더가 담긴 일나다(시 78:72)’란 주제로 생명나무교회회를 비롯한 청년대학생 대표들과, 복음으로 통일조국을 준비하는 중보기도 및 찬양사역자 대표자 등 25여 명이

제7회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비전선언문 발표

제7회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가 지난 1월 24일(화) 오전 7시 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김윤석 목사(예성총회 서기)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신상범 목사(기성 부총회장)의 기도과 송기천 목사(나성 공동부회장)의 성경봉독 후 이동성 목사(한성연 대표회장)가 ‘부흥의 공식’(롬 1:13-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설교 후에는 여성삼 목사(기성 총회장)의 축사, 이강준 목사(예성 총무)의 인사와 광고, 이관호 목사(나성 총무)의 한성연 비전선언문 낭독, 김영수 목사(나성 감목)의 축도가 있었다.

이어 시작된 이강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하례회에서는 기성, 예성, 나성 교단 총무들이 각 교단 임원들과 참석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하례회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비전선언문을 채택하여 선언했다.

선언문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갈 것과 하나님 앞에서 성결성 회복, 이슬람 세력에 대한 견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교회의 갱신과 선교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또 한국성결교회는 종교개혁의 개혁 정신과 참된 성결의 신앙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념적인 갈등 해소에 앞장서며 정치, 경제, 문화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과 열방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한국성결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임을 선언했다.

카이캉 제35회 목사고시 일정 돌입 147명 응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사장 박성수·연합회장 함정호, 이하 카이캉) 제35회 목사고시 일정이 시작됐다.

카이캉은 한 달여 간의 원서접수 기간을 거쳐 목사인수 청원서를 접수했고, 서류탈락자를 제외한 147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헛볼트리나티신학대학원대학교 강의실에서 필기시험과 인성심리검사를 진행했다.

필기시험에 앞서 하용조출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목회국장 이영웅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 목사고시에 임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긴장하지 말고 마음껏 실력 발휘 하라”고 응원했다.

이어 “사역에 임하느라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이곳에 와서도 패이퍼를 들여다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이 목사는 “어떤 인성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많이 쓰려고 하기보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확한 답을 쓰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에는 시험에 임하기 전 통성기도를 통해 나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목사고시는 조직신학과 교회사, 성경(신구약) 등 3가지 과목이 치러졌다. 조직신학과 교회사에서는 출제된 2문제 중 한 문제를 임의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성경(신구약) 과목은 신구약 각 50문항씩 총 100문항이 출제됐다.

오후에 치러진 인성심리검사는 MMPI와 MCMI가 12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치러진 필기시험 합격자는 인성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 6일 심층면접과 일반면접을 치루게 된다.

나사렛대, 중장기 발전전략 워크숍

새로운 도약 다짐하기 위해 마련

나사렛대는 지난 2월 6일(월)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중장기 발전전략과 2017 성과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임승안 총장과 주요 보직자, 실무진 등 7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열린 이번 워크숍은 학생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연도 평가 대응방안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본임토의, 2016 성과분석과 2017 목표달성계획 수립, 2주기 평가 대비 설명회 등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이영식 학교법인 나사렛학원 이사장은 “우리 대학이 맞은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며 “워크숍을 계기로 함께 목표를 향해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CTS라디오JOY “놀자PK” 첫 공개방송

목회자 자녀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개국 4주년을 맞이한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 앱(APP) 라디오방송 CTS라디오JOY(이하 라디오JOY)는 지난 2월 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CTS컨벤션홀에서 목회자 자녀(PK) 청취자 100여 명과 함께 하는 “놀자PK 공개방송”을 개최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 국내에 있는 PK를 초대해 그들이 겪는 경험담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프로그램 “놀자PK”

는 20회 방송을 맞아 청취자들과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서 교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개방송은 목회자 자녀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목회자 가정과 성도들, 청취자들이 참석 하였고 방송 게스트로 참여한 목회자 자녀들의 미니 콘서트도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놀자PK”의 제작자인 김승한 강도시는

“지금까지 많은 공동체가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각자의 색깔로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그 마음들을 모아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하여 서로 교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구실점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국경과 시간과 지역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PK와 MK를 모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라디오JOY “놀자PK”가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개국한 대한민국 대표 앱라디오 방송 <CTS라디오JOY>는 24시간 찬양과 말씀을 청취할 수 있는 종합채널과 CCM, 위십, 성가, 연주곡, 말씀 등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100여 명의 크리스천 사역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크로스컨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제작자를 상시 모집한다.



평기총 제22회 정기총회 성료

신임총회장에 정해은 목사 선출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월 20일 제2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총회장에



정해은 목사(산평제일감리교회)를 선출했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신재학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김명환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박종승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윤봉기 목사의 요 1: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꿈’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계속해 18년간 지역 기독교문화발전에 헌신한 평택 안성 디지털 기독교문화선교협회의 회장 한상욱 안수집사에게 대상(공로상)을, 평택시 호스피스선교회 발전에 헌신한 평택시 호스피스선교회 대표회장 박종승 목사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한 후 직전총회장 이국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운 태극기 물결

체감온도 영하 10도가 넘는 올해 최대 추위를 무릅쓰고 지난 2월 11일 토요일, 서울 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운 국가안보를 위한 외침과 종북·좌익 척결 태극기 물결 시위는 실로 감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이날 줄잡아 수십만의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덕수궁, 서울 시청앞 광장을 비롯 청계천광장 등에 운집하여

각 방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행진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애국 국민의 거리 시위는 주말을 거듭할수록 위세를 더해가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이른바 '국민총궐기본부'라는 좌익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면서 촛불을 켜고 국민 선동 시위를 자행해 왔다. 심지어 '노동자 정권

을 세우자'는 등 불법 구호를 외치며 대동시태를 방불케 하였다.

이들 지켜보던 우국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드디어 분노하여 일어난 국민 저항 시위이다.

이제 나라를 좌익·종북 세력의 손에서 능히 구할 수 있는 위세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바라본 서울시청앞광장 애국 집회 광경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유홍열 목사)는 지난 2월 6일(월) 태백전원교회(담임 엄기소 목사)에서 신년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진장길 목사의 사회로 총무 최정희 목사의 기도, 부회장 진장길 목사의 성경봉독, 정병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정 목사는 히 12:14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평화를 심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야 한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노력해 주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였고 이어 엄기소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회장 유홍열 목사의 진행으로 서기 정주영 목사의 회원점명과 회의록 낭독, 회계 이정은 목사의 회계 보고, 총무 최정희 목사의 경과 보고 등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혼란한 시대에 오직 예수님을 뜻대삼아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홍영광 목사)는 지난 2월 7일(화) 오전 11시 주안복원교회(담임 심재덕 목사)에서 2017년 신년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의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기도, 서기 조성진 목사(충만교회)의 성경봉독, 회장 홍영광 목사(은혜와사랑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홍 목사는 히 12:1-2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만 바라봄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작금의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뜻대삼아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필리핀 김성호 선교사와 캄보디아 김남근 선교사의 선교 보고,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한 기도시간을 갖고 증경회장 심재덕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회장 홍영광 목사의 진행으로 회계 이한숙 목사와 총무 송준호 목사의 보고에 이어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증경회장 심현일 목사(임마누엘순복음교회)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주안복원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옮겨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오찬을 함께 나누며 화기애애한 교제 의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지방회에 속한 필리핀 김성호, 캄보디아 김남근 두 선교사들이 오랜만에 함께하여 감사와 즐거움이 더하였다.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5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5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7년 3월 30일(목)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23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조 남 영
총 무 목사 최 형 택

■ 생명의 말씀 ■



정 형 기 목사

- 대소우리교회 원로목사
- 충주지방회 중경회장
- 즐거운우리집요양원 이사장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동안은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왕이 강력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자,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징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출 13:21-22). 그러나 애굽왕이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출 14:7,11-12).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위기를 당할 때에 취할 태도

출 14:10-14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1.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와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북한은 불바다를 운운하며 금방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다가도, 다음날에는 북한 학생들이 나와 아리랑 춤을 추며 축제 분위기를 보이니 북한의 속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해있으므로,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두려워 말고 담대하면 될 일입니다. 두려워하면 형벌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시 34:4)

그러므로 무슨 일에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성도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북한처럼 교회에 가면 죽이겠다고 핏박이 심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딤후 2:2)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일성수도 잘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안하고, 때로는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잠 1:26-2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르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탄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출 14:10)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으로는 뒤로도 갈 수 없을 때, 꼭 죽었구나 생각이 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살만 큼 이루어 놓았는데 죽었구나 생각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앞뒤가 꼭 막혔을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지고, 애굽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서 물이 합쳐져 죽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출 14:21)

기도하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때서야 원망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출 14:3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

위기가 올 때 성도는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면 더 꼬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시 24:8)

대하 20:20 말씀을 보면 세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당시 왕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적이 쳐들어올 때 성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나라가 서로 싸우고 이스라엘은 자동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북령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압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대하 20:22)

여기서 북령은 보이지 않는 천사의 것입니다. 오늘날도 위기가 올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위협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두려워 말고 더욱 더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믿기고, 우리는 평상시대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 정

송실대 황준성 제14대 총장 취임



황준성 교수(62·경제학과)가 송실대학교 제14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1일 송실대 환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드린 취임예배에서 황 총장은 “송실 부흥의 비전을 품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기독교 민족대학’으로 송실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사렛대 딱국 나눔 행사



나사렛대(총장 이승안)는 지난 1월 26일 천안시 청정동에 위치한 천안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꽃밭’을 방문해 설맞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나사렛대 사회봉사단 학생과 교직원 등 20여 명은 작업자들과 함께 식사와 율농이를 하며 자립을 응원하고 새해 건강과 복을 기원했다.

신임총장에 백성혁 박사 선임



예장중앙총회 직영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백기환 박사), 교수회의가 지난 2월 6일(월) 서울 중앙암바누엘센터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백기환 총장이 지난 1월 학교법인 중앙총신학원(이사장 류금순 박사) 이사회에서 인준된 총장, 교학사무처장, 교학과장, 사무과장, 국제교육원장 등 인사를 발표했다.

신현준 연기캠프, 성경학교도



HJ.FILM(에이치제이필름)이 주최하는 ‘신현준 연기캠프’가 남서울 대학교에서 오는 2월 21일부터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강사로 최수종, 하하리, 신성우, 신현준 등이 나설 예정이다. 한편 HJ.FILM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화사’라는 비전을 갖고 있으며 신현준이 대표를 맡고 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은 즉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 1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각 시도 교육청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신속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공문을 보내고, 이를 각 학교에 내려 보내서, 신청하도록 해야 하는데, 다수의 각 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즉, 원천적으로 일선 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인가?

그렇다면, 검정교과서만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데, 검정교과서는 문제가 없는가? 그 문제점은 수백 건에 달하여, 결국

은 수정한 바 있다. ‘국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도 따지고 보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 문제 때문이 아닌가?

우리 현대사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 이 분들의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즉,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 정부의 단독 수립과 반공을 통한 국가 수립,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58#8226;16 군사 쿠데타, 개발을 위한 독재적 정책을 통한 근대화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이다.

또한 가지는 북한체제의 독재와 남한에

대한 침략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서술하느냐이다. 이러한 점점들에 대하여 검정교과서는 ‘좌편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결국은 불가피하게 ‘국정교과서’의 탄생을 돕게 된 셈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하려 했으나, 박근혜 정권이 소위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적국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선책으로, 일선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학교’로 신청하면,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진보 성향을 띤 교육감이포진하고 있는 8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및 폐기 요청은 물론 이에 일선 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과정까지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난 10일 교육부장관은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 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교조 측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거나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은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무슨 자격으로 국정교과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가? 전교조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으로

부터 ‘법외 노조’로 판결을 받았고, 2016년 1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외 노조’로 판결되어 있다.

그런 단계가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택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부의 방침을, 일선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이념적인 ‘똥 개르기’이며, 이는 바른 교육의 모습이 아니다.

아무리 교육감이 진보성향이라고 하여도 교육청이 이를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폐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국정교과서 사용 반대의 입장에 선, 서울교육청의 ‘서울시 교육방향’을 보면,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성명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민족은 반만년을 이어 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수 백 차례에 걸친 외침(外侵)과 일본제국주의의 악랄한 식민지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민족이다. 김일성 공산주의 침략전쟁에서도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이다.

군부의 정치적 독재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한 대한민국이다. 근면과 성실로써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조국 대한민국이다.

이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집안에 강도(強盜)가 침투하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여 강도를 제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자 앞에서 적전 분열하고 있는 형상이다. 조국 역사에서 질곡(極酷)의 시대를 오직 나라사랑과 애국으로, 온갖 고난을 함께 하였던 한국교회는, 이 위험한 시대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성명한다.

1. 정치가들은 국가 안위를 우선하라.

현재의 국가적 위기는 국민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정당들과 정치가들의 공동 책임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무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정당들은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탈취에만 혈안이 되어, 3류 어릿광대처럼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바뀌어야 할 대상은 국민들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먹는 정치권이 아닌가?

이미 폐기되어야 할 망국적 지역주의와 국가를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다시 끌어내어 전쟁을 벌이고, 계층 간의 불화, 세대 간의 갈등을 생산해 내는 것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고도로 계산된 당리당략(黨利黨略)인 것을 이제 국민들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위험한 현실을 불만해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이제 법 정치권은 김정은 독재자의 핵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없게 하라. 국가 미래의 희망을 말하라. 국민을 하나가 되게 하라.

2. 사법부는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라.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법치주의 국가다. 국민들은 작금(昨今) 법관들의 일탈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현재는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가 목적을 정한 수사가 아닌가? 라는 의혹이 팽배해 있다. 법관의 불공정한 법집행이 국가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다. 법관이 법을 농단한다는 의혹과 불신을 사법부 스스로 해소하라.

성경은 다수를 따라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힘없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고 하셨다. 촛불이든 태극기이든 법에 우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그것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이 다스리는 국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법률적인 판결이어야 한다.

판결 이전이라도 재판관의 말 한마디가 국민적 오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 만큼 국민적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쏠려있다는 것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 된다는 반증이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결을 한다는 가정(假定)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두려운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그것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과 국민적 분열을 가져 올 것이다. 국민적 불복종도 예견될 수 있어서 매우 두려운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자랑스럽지 못한 일로 여기는데, 그 판결이 올바르게 쓰여 지지 않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가 되고 말 것이다.

4. 언론은 사실보도와 정확한 논평을 하라.

언론은 사회적 공기관(公器)이 아닌가. 그런데 현재 여러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다. 곡필, 곡해, 편파보도가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져왔고, 국가적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언론이 제 길을 찾아야 국가가 온전해진다. 언론보도의 기본원칙인 사실보도와 정확한 논평으로 무너진 정도(正道)를 되찾으라. 정론으로 명예를 회복하라.

5. 한국교회는 애국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전래된 이후 스스로 민족의 교회로 자각하여 애국의 길을 걸어왔다. 국가의 위기 때에 몸을 던졌다. 잃었던 국권을 되찾기 위한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일제의 한민족 정신 말살정책인 신사참배 강요에 몸으로 맞섰다. 6·25 전쟁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다. 정치민주화와 조국근대화에 애국적 헌신을 다했던 한국교회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위대한 국가 되게 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보우하시 우리나라 만세’의 애국가 선포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 왔다.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지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가안보가 굳건해 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세계사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가 되는 일에, 기도와 헌신으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

2017년 2월 9일

(사)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 최성해

기독교문화예술
진단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학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신학교 학장, 전 바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기독교 예술, 그 지표에 대하여 ③

기독교 예술이 근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공백 상태로 있는 동안 그레도 서구사회에서는 비기독교적인 예술이 교회를 뛰어넘어 예술의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한편 교회는 그런 움직임을 기독교적이지 아니라고 예술의 효율성을 교회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소재나 내용이 기독교적인 부류의 예술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교회는 이들 기독교적인 예술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가 이들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아무리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기독교와 상치되는 점이 있는 이상 그것을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비견한 일례를 T.S. 엘리엇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 시에서 성찬사에서나 쓰는 “오 주여, 나는 가치가 없나이다”는 말을 사용한 것이나 1930년에 쓴 성회

수요일 시에서 성녀를 성모 마리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었는데 교회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Lady of silences
Calm and distressed
Tom and most whole
Rose of memory
Rose of forgetfulness
Exhausted and life - giving
Worried reposeful
The Single Rose
Is now the Garden
Where all loves end
Terminate torment...



예술독아
칼럼

문찬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호수아교회 담임목사, 캐나다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M. A.), 한세대학교 목회학석사 졸업 (M. Div.), 호서대학교 신학박사 졸업 Th. D),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과정중

엑스맨, 와이맨

(요 13:10)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더글러스 맥그리거 (Douglas McGregor, 1906-1964)는 인간에 대해 X, Y 이론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X이론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인간은 원래 일하기 싫어하고 수동적이고 게으른 존재이므로 조직에서 인간을 다룰 때는 강한 규율과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종교철학에서 말하는 성악설(性惡說)이라 할 수 있습니다. Y이론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원래 양심적이고 창의적이기에 누군가 간섭하지 않아도 내면적 동기에 따라 스스로 일하고자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인간을 다룰 때 이런 긍정적인 관점 안에서 그들의 창의적 자발성을 믿고 일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선설(性善說)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실상은 X이론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Y이론에 가까울까요? 최근 (某) 교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학술대회에 사람들이 점점 모이지 않아 주좌하는 곳에서 각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궁리 끝에 최고 100만 원가량의 경품을 걸었더니 그 학회에 학자들이 넘칠 정도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학자들이 고작 상품 때문에 모이다니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인간은 한심한 X맨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가정한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조지 오웰(George Orwell, 영국의 소설가, 1903-1950)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끔찍한 통제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는 인간 본성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간단치 않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는 그 고귀한 인간이 죄로 인해

침묵의 성녀
평온하고 고뇌에 쌓인
찢기고도 가장 완전한
기억의 장미
망각의 장미
고갈됐어도 생명을 주는
조용히 근심하는
그 유일한 장미는
지금 정원에 있고
거기에서 모든 사랑도 끝나고
고뇌도 끝난다...

분명히 교회는 그것이 기독교적이라고 해도 기독교와 상치하는 점이 있는 이상 기독교 예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예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 이러한 문제는 종교와 과학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날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문명의 부작용은 이에 따른 새로운 악의 출현이었는데 교회는 이런 것들이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교회의 적으로 간주했고, 또 이를 적그리스도라 했으며, 나아가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보기도 했던 것이다.

타락하여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와서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거듭난 인간의 거룩한 변화, 즉 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맥그리거의 용어를 차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창조 시에는 Y맨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써 X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적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즉 X맨 수락을 지닌 Y맨(의인인과 동시에 죄인 simultaneously justified and a sinner)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가다가 결국 구원의 완결의 시간이 다가오면 완전한 Y맨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복잡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나 타인이나 공동체나 사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인간의 복합성(즉 X맨인과 동시에 Y맨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통 인간을 X이론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나 관용 없기에 갈수록 인간관계가 협소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인간을 Y이론의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에게서는 지혜와 통찰의 결여로 인한 실망과 상처만 쌓이게 될 것이고 결국 그는 지독한 X이론 찬양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도 인간을 은혜로 상대하시나 동시에 창조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제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X맨에게 초점을 두시고 장기적으로 몇몇 Y맨을 꿈꾸시면서,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와 조직경영의 지혜입니다.

시사제언

신소결 목사 // 순복음우리교회

언제까지 침묵만하고 계실 겁니까?



할렐루야!
저는 코미디언 출신의 신소결 목사입니다. 이 땅의 존경하는 기독교계 어르신하신 지도자 목사님들과 중대형교회 목사님들께 감히 호소합니다.
(글 솜씨가 없어 길더라도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계실 겁니까?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나라 앞날의 존재위기 속에서 한 치 앞도 분간 못하는데도 종북좌파가 피라냐와 같이, ‘하이에나’와 같이 민주주의를 물어뜯는데도 기도에 힘쓰시겠다며 시국을 외면하시겠다면~ 언제까지 이런 위선으로만 일관하실 겁니까?

- 혹시 성도들이 흠이질 까봐 교회 내에 있는 종북좌파들의 눈치만 보고 계신 겁니까?
- 아니면 지금까지 누려온 부귀권세 그리고 극진히 대우받던 그 지리가 아까워서 말씀 한마디 못 하고 계신 겁니까?
- 아니면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옳은 말씀도 못하고 시고 나 몰라라 침묵만 하고 계신 겁니까?
- 아니면 목숨이 아깝고 촛불이 부서워 짝소리도 못하고 계신 겁니까?
- 그러시다면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비겁하신 분들입니다.

저 신소결 목사는 일제 말기에 태어나 6.25 때 시골 면장이던 아버님이 종북좌파 빨갱이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패망 월남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가 공산화 되고 나니 공산화를 위해 반정부 테모만 했던 기독교성직자들과, 성도들, 타종교 불교 승려님들, 천주교 신부님들과 신자들까지도 논공행상은커녕 모두 선착순으로 숙청당하는 걸 확실하게 목격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후 김연이설 유언비어 선동선전의 달인이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종북좌파들의 언론 왜곡을 통한 허위날조는 얘기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날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나라가 종북좌파 세상 패도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지금 그 자리 유지 하실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환상을 버리십시오. 탈북자들을 통한 이북의 기독교 실

태 애길 들으셨습니까?
이땅에 김정은의 사주 받은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숙청대상 “1호” 인줄 아시면 됩니다. 평소 눈엣가시 같았던 저야 물론이겠지요만!

존경하는 교계 지도자 목사님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께 감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목사님들의 설교엔 순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바로 그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순교 정신으로 목치면 이 나라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순교 정신으로 일어서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애국심에 보조 맞춰 따라가겠습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 저희 같은 개척교회의 작은 목사님들이 그 추운 토요일마다 매주 성도들 약간 몇 명씩 모시고 나와 외쳐 봐야 효력이 없습니다.
- 참깨가 “천 바퀴” 구르는 것 보다 큰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형 교회 목사님들께서 바로 이때 성도님들 이끌고 나오셔서 태극물결에 힘을 보태실 때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 교회를 그처럼 크게 부흥시켜 주심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습니까?

- 안 그러면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 괴소문같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종북좌파에게 무슨 약점이 얼마나 잡혔기에 짝소리도 못 하고 계십니까?
- 그레도 침묵 하신다면 이북왕래 하시다가 항간의 괴소문같은 진짜로 무슨 큰 약점이라도 잡혔나? 하고 국민들에게 큰 오해 받으실 겁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일정상 현장 참석을 못 하시겠다면 강단에서 성도들을 독려해서 태극기 아래 목청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애국시민 집회에 참석하라는 설교라도 유튜브에 올려 주시면 애국 애족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태극기 흔들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국가이며 법치국가인 정체성을 위해 태극기 탄핵 기각 집회에 함께 모여 주시길 외람될지라도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호와 빛”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사순절 미디어금식캠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깊은 묵상을 방해하는 스마트폰이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있다. 최근 실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옆에 놓아두기만 해도 주의력이 떨어지고 수면 부족 가능성이 79%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을 늘 애용하고 있다.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계속 손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의 눈과 손, 그리고 마음까지 끌려가기에 일상 생활 속에서 의도적으로 작성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밝힙니다

現在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우리는 박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 불호나 찬, 반을 떠나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1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헌이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 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 6 현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현재의 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이미 퇴임한 박한철 재판소장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동참인 (무순)

변호사 정기승 (전 대법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초대 회장)
변호사 박만호 (전 대법관)
변호사 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변호사 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변호사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변호사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변호사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변호사 김종표 (원로 변호사)
변호사 이준소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변호사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기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조원룡 변호사 Tel. 02)522-4652, Fax. 02)522-365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양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최병진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웅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r-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17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전수 목사
HP : 010-3698-57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 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총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진동용 목사 (새소망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뽕엘교회)	염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임명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북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백영자 목사 (능동순복음교회)	신동숙 목사 (순복음마미노엘교회)	김기진 목사 (지천순복음중앙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견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미교회)	김박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평원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한국교회)	박홍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양은예 목사 (청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선교회)	이화숙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임영현 목사 (순복음승리교회)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홍현자 목사 (시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가장순복음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서범석 목사 (기나안영성원교회)	정에스터 목사 (예수향기교회)	육보에 전도사 (소망농아교회)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하여 ...

요한후스, 존 칼빈, 마르틴 루터를 엮 먹인 WCC, WEA,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일치' 훼파하지 않고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논할 자격이 없다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10일(금)

장소 / 크리스천언론인협회

시간 / 오후 2시

한국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논할 자격 없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다. 이에 맞춰 WCC, WEA, '신앙과 직제일치' 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사무총장 고정량 목사는 최근 소책자를 발행하여 한국교회에 배포하면서 입장의 변을 밝혔다.

Q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하여 소책자를 발행, 배포하면서 갖는 회견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A 올해 들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를 이끌고 있는 교계 지도자들이 종교개혁 운운하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종교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것처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운운하는 것은 무서운 위선이다. 이번에 소책자를 발행 배포하는 이러한 위선의 실상을 밝혀 미혹 당하지 않게 하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Q 지금의 기독교회는 요한후스, 루터나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비롯된 역사를 가졌기에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올해는 어느 해보다 의미가 깊다. 그래서 이때에 한국 교계 지도자들 대부분이 나서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려는 움직임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위선이며, 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가 왜 말인가? 지금의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단 말인가? 낫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뜻깊은 500주년이 아니다. 슬프고 비극적인 500주년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교계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한다. 가장 치욕스럽게 기독교회를 타락시켜 버렸고, 지켜내지 못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의 기독교회는 요한후스, 루터나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건 희생으로 말미암은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역사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의 기독교회는 요한후스, 루터나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건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기독교회가 절대 아니다. 전혀 다른 기독교회로 변질, 변형, 타락되었고, 타락시킨 장본인들이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현재 교계지도자들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 정체성을 숨기는 위선이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행위인 것이다.

Q 지금의 기독교회가 루터나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은 기독교회가 아니고 타락된 기독교회이며, 타락시킨 장본인들이 현재 한

국교회를 주도해 가는 지도자들이라고 하였다. 이들이 어떻게 기독교회를 변형, 변질, 타락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A 앞서서도 말했듯이 요한후스, 루터나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은 정체성과 역사를 가진 것이 기독교회이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의 현재 한국 교계 지도자들은 어떤가? 요한후스, 루터나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은 그 기독교회를 없애 버리는 무서운 정체성으로 변종된 한국교계지도자들이다. 이러한 타락의 증세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들과 연합 되어 있거나, 묵인, 방조, 연합관계에 있다. 이들은 루터나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의 정체성과는 전혀 다르다. 다를 뿐만 아니라 반역의 정체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실체를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에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 대답은 자손이면 조상과 정체성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였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조상과 전혀 달랐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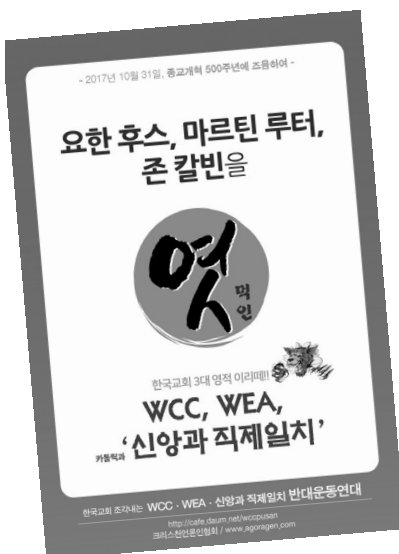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 교계 지도자들도 요한후스, 루터나 칼빈 등, 기독교회를 일으켜 세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후예들이 절대 아닌 것이다. 도리어 정반대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요한후스, 루터나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였지만, 이들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한국 교계 다수 지도자들은 로마 교황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여 영접하는 상태이다. 요한후스 루터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 피 흘리며 죽음으로 맞서 저항하고 개혁하여 일으켜 세운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린 장본인들이 현재 한국 교계 지도자들 다수이고, 나머지 대부분 교계 지도자들도 방조, 침묵하며 연합된 상태이다.

기독교회는 요한후스, 루터와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를 배척하고, 성경적으로 개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본래의 기독교회로 회복시켜 역사를 있게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교계 지도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존중할 뿐 아니라 일치시키기까지 했다. 이래도 이들이 한국 교계 지도자들인가? 절대 아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회를 존재케 한 요한후스, 루터와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역적들이며 기독교회에 대한 배교자들이며, 반역자들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교계 지도자들이 어떻게 종교개혁 500년 운운할 자격이 있으며, 기념행사를 계획한단 말인가? 어떤 모양새를 가리켜서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하겠는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할 대상은 한국 교계를 이끌고 있는 지금의 교계 지도자들이다. 이들이 한국 교계를 이끌고 있는 진정한 지도자라 한다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를 더욱 확장 시키고, 더욱 굳게 세우고,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한다. 그런 책임과 위치에 있어야 할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도리어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렸다. 이들은 요한후스, 루터와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은 기독교회 지도자들이 결코 아니다.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기독교회를 없애 버리는 정체성을 가진 대적들이다. 가톨릭과 일치를 앞세워서 말이다.

오늘날까지 기독교회를 존재케 한 요한후스, 루터와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은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에 대하여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죽음으로 저항했으나 지금의 한국 교계 지도자들은 저항하기는커녕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존중하고, 가톨릭과 오히려 가까이 사귀고 함께 기도하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로 서명하여 조약을 맺기까지 한 상태이니, 이들이 어떻게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란 말인가? 이들이 왜 이런 몹쓸 짓을 하는가?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기 위해서다.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기 위해서 한국 교계 지도자들은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그대로 존중하니, 이들이 바로 기독교회의 무너뜨리는 정체성을 가졌고 개혁의 대상들이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고히 지켜야 한다. 기독교회는 요한후스, 루터,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이 개혁적인 성향으로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에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경적인 본래대로 회복시켜 역사를 이어온 기독교회이니, 이러한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고 훼손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이 우리 기독교회와 일치하려면 지금까지의 가톨릭의 전부를 갈아 뒤엎어 정사 지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경적인 기독교회로 거듭나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Q 한국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지금의 한국 교계 지도자들을 믿고 따른다. 이러한 관계에서 교계 지도자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니 충격적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송 춘 길 목사
WCC, WEA 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A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 때문이다. 대만에 수교장으로 통합교단을 비롯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는 WCC회원이다. 이들이 WCC회원이 되어 WCC노선을 따른 결과가 바로,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에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경적인 본래 대로 회복시켜 역사를 이어온 기독교회를 반 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이며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종교,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과 목적을 가진 것이 WCC이다.

WCC는 1966년부터 가톨릭과 일치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여 왔었고, 이를 본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비롯한 NCCK는 1987년부터 한국의 가톨릭과 일치를 바라는 기도회를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 주일간 연중행사로 개최해 왔었고, 이를 따라서 2009년 김삼환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장과 NCCK 회장으로 재직 시 가톨릭에 기독교회를 일치시켜 버렸고, 2014년 5월 22일에는 일치한 것에 따른 서로 다른 신앙과 직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서명하여 청탁하기까지 진일보한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태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톨릭에 기독교회를 일치시켜 버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통합교단을 비롯한 NCCK회원들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이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창립하여 출범시켰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 86% 이상이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WCC가 추구하는 일치 노선에 의해 몰락해 간다는 점이다. 기독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여러 많은 교리를 중에 한두 가지만 틀려도 이단으로 규정하고 말리하여 기독교회를 지켜온 한국교회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통합교단을 비롯하여 NCCK가 기독교회를 통째로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는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이들을 책망하거나 바르게 인도함이 없이, 교리의 디딤과 전통을 그대로 존중하고 연합일치를 추구한다. 이 같은 처사는 WCC물결에 한국교회 전체가 젖어 들어 몰락해 가는 심각한 증세이다.

Q 위기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낼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A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정체성을 가져야 함과 같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는 요한후스, 루터,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비롯된 기독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야 한다. 그 정체성은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배격하고 성경적으로 개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비롯된 기독교회를 굳게 세우고 더욱 확장시켜 나가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인들이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마 28:19-20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한국교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WCC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들이 목격하는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는 미명하에 이 세상 종교 간 일치와 이 세상 평화를 추구한다. 여기에 기댄 한국교계지도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WCC의 인본주의 사상을 따름이고 결과는 가톨릭에 기독교회를 일치시켜 없애 버리는 무서운 정체성으로 변종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WCC지지 교단들을 인간의 마음으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는 대적의 정체성으로 변종됨을 알고, 이들의 정체와 행위를 책망하고 회개시켜야 한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WCC지지 교단들과는 관계를 단절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이것이 요한후스, 루터,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은 기독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아울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일이며 대상들이다. WCC, WEA,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일치'를 훼파하지 않고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 반드시 훼파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 가지 못할 것이다.

책자 및 책갈피 주문(비매품, 무료/택배비 착불)
010-6642-4131



CTS, 글로벌 리더 위한 ACT 인강

목회자·선교사 자녀 및 기독교 학교 학생 대상 저비용 고효율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미디어선교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국내외 기독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크리스천 학생들과 전 세계 선교사 자녀(MK), 목회자 자녀(HK)들의 미국 및 해외대학 진학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ACT인터넷 강의인 'ACT36 (www.act36co.kr)'을 개설했다.

국내 SAT 또는 ACT 오프라인 학원 중 가장 저렴한 수강료가 월 200만 원이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미국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ACT라는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시험이므로 기본 개념과 유형을 익히고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다.

이에 CTS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진학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ACT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유희특강도 매일 진행 중이다. 'ACT36'의 ACT인터넷 강의는 학원 강의를 단순 촬영, 제작한 프로그램이 아닌 3,000여 편 이상의 교육콘텐츠를 기획, 제작한 교육전문 제작자와 아이비리그 출신의 ACT 전문 강사들이 모여 ACT만을 연구 개발하여,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ACT36'의 장점은 오프라인 학원보다 더 디테일하고 실전 문제 풀이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ACT36' 수강생의 40%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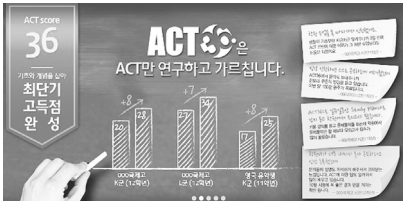


고등학생들인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가 높다.

'ACT36' 강명준 사장은 "ACT인터넷 강의는 개념정리와 리뷰 및 단기간 집중학습을 통해 다가오는 ACT 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전했다.

'ACT36'에서 제작한 ACT인터넷 강의의 경우 △ English 28강 △ Math 22강 △ Reading 24강 △ Science 21강을 필요에 따라 각각 수강할 수 있다. 각각 수강할 경우 과정별로 25만 원에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 96강을 수강할 경우(6개월 이용 가능) 10% 할인된 90만 원에 신청 가능하며 ACT필수VOCA 1600이 증정된다.

이러한 ACT인터넷 강의는 아이비리그 출신 전문강사들이 기존의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해 1,000시간을 녹화, 이를 다시 96개의 강의 총 90시간으로 압축한 고크리티의 강의로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ACT 준비생들을 위해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에 대한 다양한 장학혜택은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02)6333-5515



다문화 가족사랑 기념사진 전달식

월드뷰티핸즈, 중국 등 17개 다문화가족에게

K-뷰티로 사랑을 전하는 국제뷰티구조개발NGO(사)월드뷰티핸즈(이사장 정현일, 회장 최에스터 교수)는 '다문화 가족사랑 기념사진 전달식'을 지난 1월 26일(목) 오후 1시, 종로 세기종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세기종(대표회장 고시영 목사)과 비전코리아(대표 김광용 사진작가)와 함께 중국,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등 17개 다문화가족과 함께 "다문화 가족 성탄 축하 가족사랑 뷰티서비스"를 통해 헤어 메이크업과 네일 뷰티서비스를 받고 전통의복을 착용한 후 가족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명절을 앞두고 생명나무교회(담임 정현일 목사) 후원으로 중국대표 주재홍(성북구)씨에게 전통의상 가족사랑기념액자를 제작해 선물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사)월드뷰티핸즈 장현일 이사장과, 회장인 최에스터 신한대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와 세기종 신광수 사무총장과 박광철 과장이 참석해 축하했다.

국내·외 뷰티구조와 뷰티기술교육을 진행하는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 전문교수와 기관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뷰티구조개발 NGO 사단법인 단체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아프리카에 뷰티서비스와 뷰티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월드뷰티핸즈는 1365자원봉사 행자부 인증기관으로 다문화가족을 비롯 새터민 가족 등 지속적인 뷰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비전, 여성 할레 근절 강연 진행

할레의 실태·위험성, 피해 여성 지원 사업 등 소개

국제구조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세계 여성 할레 철폐의 날(2월 6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여성 할레 근절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말리아월드비전 여성할레철폐 및 여성보건지원사업 담당자 '넵코 이드 아덴' 직원이 직접 방한해 여성들의 건강과 인권을 짓밟는 여성 할레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관심을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서울예술고등학교 1~2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

으로 강연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할레의 실태 및 위험성, 소말리아월드비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 할레 피해 여성 지원 사업과 이를 통한 소말리아여성들의 성공적인 저립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다.

강연에 참가한 학생들은 "우리와 나이가 같은 친구들이 할레를 통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소말리아 여성들이 할레의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등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여성 할레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2008년부터 소말리아에서 여성 할레 철폐 의식 개선 교육, 산과적·누궁 수술 및 재활 치료, 직업 교육, 창업 지원 등의 통합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여성 할레란 의료적 목적 없이 성인식이라는 미명 아래 여성 성기의 전체 혹은 부분을 제거하거나 상처 난 뒤 좁은 구멍만 남긴 채 봉합하는 의식을 말한다. 대부분 미취나 소독 등 제대로 된 의료 장비와 절차 없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행해지며 이로 인해 과다 출혈, 쇼크, 각종 합병증을 동반한다.



“아동 안전교육 필요” 93.4%, 안전한 환경 절실

초록우산, ‘아동생활환경 안전연구’ 발표… 87.9% “교통교육이 1순위로”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헬고리아의 후원으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부모, 교사 4,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의 생활환경 안전연구'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3.8%가 가정 내에서 안전하다고 느꼈으며, 학교는 88.2%, 지역사회는 60.5%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아동 생활환경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생활환경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동 안전 교육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3.4%에 달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전원이 아동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중 90%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필요한 안전 교육 영역으로 전체 응답자의 87.9%가 교통안전 교육을 꼽았으며, 뒤이어 화재, 화상 교육(78.5%), 놀이 중 안전사고 교육(60.1%)이 필



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낙상사고 교육(36.9%), 식중독, 약물 관련 교육(32.5%)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효과적인 안전교육 방법으로는 '학교 교육'이라는 응답이 77%를 기록했다.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로 '내가 부주의해서'라는 답변이 학생, 부모, 교사 집단에서 1위로 꼽히며, 전체 응답자의 47.5%를 기록했다. 반면 2위에서는 응답이 갈려 아동은 '윤이 나빠서' (13.4%), 부모

와 교사 집단에서는 각 13.9%가 '안전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꼽았다. 개인의 부주의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지만, 부모와 교사는 아동 안전사고를 환경적 차원의 문제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안전사고 발생률과 안전지식 수준은 가구소득 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전사고를 경험한 아동은 13.1%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정에서 아동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8.3%)했다. 안전지식 수준은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가구의 안전지식 수준이 8점 만점에 6.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가구는 6.04점, 300만 원 이하 가구는 5.93점 순이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부모의 맞벌이나 돌봄 부재로 인해 가정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바,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의 안전 교육 진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희망날개 LG디스플레이클럽, ‘꿈 발표회’

저소득층 아동 위해 경제적 뒷받침 프로그램

월드비전(회장 양호승)과 LG디스플레이(부회장 한상범)가 함께 운영하는 '희망날개 LG디스플레이클럽'이 지난 2월 3일, 파주 LG디스플레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꿈 발표회'를 개최했다.

'희망날개 LG디스플레이클럽'은 월드비전과 LG디스플레이가 저소득층 아동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꿈 발표회'는 '희망날개 LG디스플레이클럽'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아동들이 지난 1년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LG

디스플레이 이광수 부사장,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소개하고 지난 1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서를 가졌으며, 성악가, 첼리스트, 피아니스트, 민요 명장 등을 꿈꾸는 아이들이 그동안 쌓았던 실력을 뽐내는 작은 콘서트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화가 및 일러스트작가를 꿈꾸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월드비전 전영순 국내사업본부장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경제



적 지원보다는 아동이 스스로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희망날개 LG디스플레이클럽' 사업을 통해 많은 아동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종교개혁 500주년 즈음하여

성명서

AD 300년경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기독교회를 국교로 삼았는데 그것이 바로 가톨릭이다. 가톨릭은 로마 제국의 종교로서 모든 교리와 의식 행위가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변형, 변질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던 중, 1517년부터 루터, 칼빈 등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바쳐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경적인 본래의 기독교 회로 개혁하여 500년 역사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회다. 이러한 역사와 개혁주의 정체성을 가진 기독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불행하게도 더 이상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는 비운에 처하고 말았다.

지 본래대로 회복시켜 일으켜 세우고 지켜온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반역이며, 기독교회의 종말을 고해버린 영적 음란행각이다.

기독교회를 로마 가톨릭에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단 말인가?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 당시보다 더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교리와 의식행위가 더 추가되고 더 변질되지 않았는가? 이런 로마 가톨릭에 어떻게 주의 몸 된 기독교회를 일치시킬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과 NCCK가 WC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WCC 물을 먹고 자라 WCC가 지향하는 노선을 따른 결과이다. WCC의 실체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옷을 입고서 세계에 있는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버리고 기독교회 역사를 더이상 이어 가지 못하게 종말을 고해버리려는 양의 탈을 쓴 이리이다. WCC는 기독교회의 대적이다. 그러므로 WCC회원으로 가입된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는 WCC를 탈퇴하라. WCC 노선을 따라 가톨릭과 일치를 위해 창립한 실무기구, 신앙과 직제협의회 탈퇴를 공식화하라. 교회 안으로 유입된 WCC의 인본주의 사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 주의 몸 된 기독교회를 지키려는 개혁을 단행하라.

주후 2017년 2월 1일

WCC, WEA, 신앙과 직제일치 반대운동연대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agpgs.aogk.org

2017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4학기 (2년)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2월 10일(금)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 ~ 2017년 2월 17일(금)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2016년 12월 5일(월)~2017년 2월 10일(금)
- ②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③ 면접시험 :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1시
- ④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최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기 촉구 기자회견

동성애 비판 인권탄압으로 제재, 동성애 옹호·조장 심각한 우려

서울시교육청 정분 앞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국내 에이즈 감염의 90% 이상이 남성 동성 간 성행위 때문인 걸 모르나”라고 질의하며 “간접한 교사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즉각 폐기되어야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 K중학교 Y교사가 수업 시간에 남성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교육한 것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서울시교육청에 고발당한 사건으로 비롯되었다.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이 녹음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침해라고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중학교에 “Y교사가 보여준 자료 일체와 K중학교의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27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동성애에 대한 간접한 비판마저 차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및 동성 간 성행위와 관련하여 선량한 성도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도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고 “따라서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했다고 해서 양심, 표현, 신앙



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결코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잘못된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공권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며 “현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의 선량한 양심에 근거한 교권을 심대하게 억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율라 “탄약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억압한다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부모들과 건전한 시교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감 퇴진운동을 비롯해 유권자운동 규탄대회 등을 끈질기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켜며 공익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2회 전국장애인문학제 개최

장애인의 문학적 기질 발굴과 사회참여 확대

고양시(시장 최성)는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전국장애인문학제’ (이하 문학제)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경주) 주최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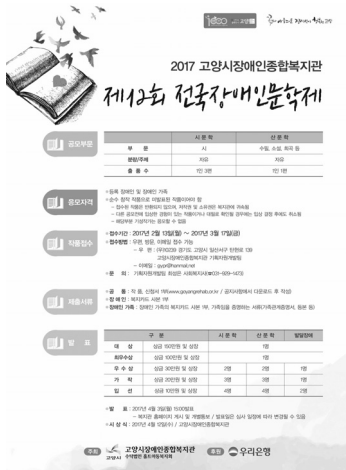
이번 문학제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시문학과 산문학으로 구분하여 작품을 접수하며, 보람 및 주제는 제한이 없어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다.

작품접수 기간은 2월 13일(월)~3월 17일(금)까지 5주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2일(수) 장애인 달 행사와 함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만원과 상장이 지급되며 그 외 수상자에게 총 54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문학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goyangrehab.or.kr)를 참고하거나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지원개발팀(031-929-1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 :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39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지원개발팀
-전화번호 : 031)929-1473
팩스 : 031)929-1429
-이메일 : gypr@hanmail.net



사설

헌재(憲裁), ‘솔로몬의 재판’을 기대한다!

작년 12.9.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처사를 가리켜 전 대한변협회장 김평우 변호사는 ‘12.9. 정변’ 이라고 지탄하면서 “탄핵의 절차와 내용으로 보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10.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원로 인사 9명도 신분광고를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발표했다.

작년 12.9. 이전 11월부터 종북·좌익단체 연합체가 주도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이른바 ‘광화문 촛불집회’가 이미 벌어져 왔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에는 이제 촛불집회는 더욱 번질되면서, 그 속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온갖 저주와 비하와 인격살인 행위가 자행되어 왔다.

일부 선량한 시민들도 좌익선동에 속아 참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좌익단체 중심의 반정부 집회가 불법 난동으로 치닫자, 보다 못한 대한민국예국·정통 자유민주 세력들이 참된 국민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일어났다. 급기야 촛불집회를 압도하는 태극기 물결 집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면서 좌익 불순세력을 압도하는 기세로 발전하였다.

2017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은 한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탄핵찬성과 탄핵반대로 나누어져 대규모 시위대결이 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좌경 야당 대권후보란 사람들은 촛불시위가 더욱 불타올라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라고 겁박하고 나섰다. 반면에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는 일반 국민, 여당 지도급 인사들과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며 불가하다, 탄핵을 기각하라”는 주장을 펴면서 강력히 대항하여 나서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未曾有)의 국론 분열 상태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입각한 공의롭고 초연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하며 나라 격상에 잡 못 이루는 애국 국민은 노심조사 지켜보고 있다.

당초 국회 탄핵소추위 측은 13개 항의 탄핵소추사유를 제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2.22.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를 57가지로 정리했다. 즉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

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위 9인의 원로 법조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과 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분별력(지혜)’을 은사로 받았다.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옷먹이 사내아이를 들고 서로 자기 아이라는 것을 판결해 달라고 솔로몬 왕 앞에 왔다. 왕은 하늘이 준 지혜를 동원하여 뜻밖의 판결을 내려 놓았다.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두 사람이 서로 내 아이라고 하니 아이를 반 토막 내어서 한 토막씩 가지기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한 여인이 얼굴이 파랗게 지면서 “왕이시여 그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마시고 산체로 저 여인의 것이 하소서 하소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여인은 참으로 공평한 판단이라는 듯 “내 것도 안 되고 남의 것도 안 되게 아서 두 쪽으로 내어달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관 솔로몬 왕은 두말 않고 살아 있는 아이를 양보한 여인이 바로 참 어머니라고 판결하여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판결의 현명함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했다(왕상 3:16-28).

지금 이 나라 사정이 솔로몬 왕앞에 선 두 여인과 유사하다. 한쪽은 사회주의 ‘노동자 정부를 세우자’는 플래카드를 나눠며 나라가 죽어도 좋으니 탄핵을 3월 이전에 용인하여 대통령을 빨리 내쫓으라고 한다. 다른 한쪽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 탄핵이 부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쪽은 나라를 ‘두 쪽을 내라’는 기세이고 다른 한쪽은 ‘제발 죽이지 말고 살리라’는 형세이다. 원컨대 이 나라 최고의 지혜로운 판관들이요 나라의 공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관들께, 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상기하여, 진정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적 심판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하나님의 계시(아포칼립스)

주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전도대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항복하고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떠났 습니다’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마귀가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보다는 사역의 결과로서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 기쁨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구원입니다. 주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포칼립스(계시)가 열려,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가 누구며,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슬기시키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 타내어 주심이 감사하니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것을 보 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았음에 복 받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들이 누구인가를 계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기노스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율법의 관원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감춰져있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지만 의미는 모른 채 행위만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숲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서 헤매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헤매다 예수님 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하며,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비로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들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개강 : 2017년 03월 02일 목요일)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자암, 수원, 하남, 이 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 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 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대림벤엘교회 창립 30주년

‘당회장 정부용 목사 성역 40년, 담임 조선남 목사 취임’ 제2의 도약

‘집사안수 및 권사취임’... 복음의 진리 사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다짐



인사말
당회장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창립 30주년 기념 및 담임 조선남 목사 집사안수 권사취임 예배가 지난 5일(주일) 저녁 7시 동교회 대성전에서 드려져 4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임사
담임 조선남 목사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가평 순복음교회 당회장)를 감사로 하여 열린 이날 예배는 1부 식전행사, 2부 예배, 3부 담임목사 취임식, 4부 집사안수 및 권사 취임식, 5부 감사와 축하 순으로 나누어 은혜로운 가운데 드려졌다.

1부 식전행사는 대림벤엘교회 부목사 주강욱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고양시립합창단 남성 4중창의 축하송, 대림벤엘교회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30주년 기념 디퓨전터리 영상 상영, 에이레네선교단의 경배와 찬양 등의 순으로 대림벤엘교회의 아제와 오늘을 돌아보았다.

곧 이어진 예배는 주강욱 목사의 사회로 교단 부흥사회장 신재영 목사의 대표기도, 교단 여교역자국 기획부장 조영란 목사의 성경봉독,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히 11:1-6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단의 역사가 65년에 이르다 보니 1세대 목회에서 2세대로 목회로



축하영상
조용목 목사



설교
조남영 목사



축하영상
토마스 카이로스 목사
미국AG 글로벌리빙교회담임



담임목사취임 집례
배진기 목사



축사1
김용도 목사



권면2
이용주 목사



권면1
김인찬 목사



대표기도
신재영 목사



축사2
서정복 목사



성경봉독
조영란 목사



사회
주강욱 목사

아름다운 승계가 이루어짐을 보며 감개가 무량하다”고 전하고

“대림벤엘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당회장 정부용 목사의 노고와 헌신, 마귀와의 전쟁이 절절히 가슴에 와 닿으며 정 목사님으로부터 잘 훈련받은 조선남 목사님이 담임으로 새워짐을 감사드리고, 세워진 제직들과 온 성도들은 창립 30주년을 발판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더욱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며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최의식 장로의 헌금기도, 에이레네선교단 어머니 단성팀의 헌금송으로 2부 예배를 마치고 교단 증경총회장 배진기 목사 집례로 담임 조선남 목사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조선남 목사는 취임사에서 “하나님과 의 소통, 성도들과 의 소통 등 소통하는 목회”를 다짐하고 “대림벤엘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어 4부 순서로 당회장 정부용 목사 집례로 11명의 집사를 안수집사로, 9명의 집사를 권사로 세우는 집사안수 및 권사 취임식을 가졌다.

5부 축하순서에서는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



사의 축하영상, 기독교단협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와 교단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의 축사, 기독교단협 고분 이용주 목사와 교단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권면, 김춘성 안수집사회장과 김미옥 권사회장의 환영사, 김미옥B 권사의 답사, 예를을 주고받는 예물증정이 있는 후 케이크팅식을 갖고 대림벤엘교회 당회장 정

부용 목사의 인사말,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정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림벤엘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더욱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대림벤엘교회는 3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도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대림벤엘교회 150-072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116-49
www.daelimbethel.org 02845-5095

